

국민의힘

국민행복 창기는 일꾼!

국회의원 이달희 보도자료

"지방시대 활짝! 행복한 지방시대 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21호 | (TEL) 02-784-2316 | (FAX) 02-6788-7235

배 포 일

2024. 10. 22. (화)

담 당 자

신정호 비서관

이달희 의원, “호남 메가시티 구축,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호남권 지방시대를 위한 필수과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늘(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주광역시가 전남, 전북과 함께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동맹’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저출생, 주택 문제, 과당 경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500만 명이 되면 자체적인 자생력이 생겨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전북, 전남, 광주를 합치면 505만 명이 된다”며 ‘호남 메가시티’ 추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은 “얼마 전 전북, 전남, 광주 시도지사들이 ‘호남 메가시티 경제 동맹 선언’을 통해 관광 문화, 고속도로 개통 같은 것들이 논의됐지만,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은 자치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최근 군공항 이전 논란 등을 보면 여전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기정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시장은 “선(先) 기능통합 후(後) 행정통합이라는 큰 원칙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당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할 생각이 없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란다”면서 선 기능통합에 해당하는 광역철도, RE100 관련된 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